

일본에서의 유학생생활

건국대학교

김부경

2590007

교환 유학생 생활은 대체로 즐거웠습니다. 도쿄 안에서, 그리고 도쿄 근교의 이런저런 곳들을 많이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물론 힘든 점도 있었지만 잘 적응해냈다고 생각합니다.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. 여러 풍경을 보고, 여러 경험을 하면 채워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저에게도 한학기동안 친구들과 함께했던 여행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

수업은 조별 과제, 토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여러 국가 출신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회화 실력도 조금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일본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아서,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

생활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튜터가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도움이 되었습니다. 곤란한 순간에도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욱 즐거웠고 든든하다고 느꼈습니다.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그 자체로 저에게 배움이 되었고, 앞으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

